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위해 20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으로 신청 받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도 배제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에도 신청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 010-5599-2940)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591~9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이야기 담은 '전주윤슬 50선' 발간

월간 윤슬 50개 작품 선정해 사람·공간·문화·역사 등 테마로 분류 구성

전주의 역사와 문화, 사람과 명소 등의 이야기가 담긴 책자가 발간됐다.

전주시는 매월 제작되는 월간 윤슬 가운데 50개 작품을 담은 '전주윤슬 50선'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첫 발간이 시작된 '전주윤슬'은 환경, 역사, 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연구위원들이 매월 1편씩 제작했으며, 현재까지 60여 편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간된 '전주윤슬 50선'의 경우 그간 제작된 월간 윤슬을 주제별·공간별 다채로운 테마로 분류한 뒤 글 중간마다 일러스트와 사진을 삽입해 전주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풀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운동가, 민주화열사, 비보이 등 전주시립이야기(7편) ▲오목대, 남부시장 청년물, 전라감영, 전주시청사, 건지산 숲 등 전주 공간이야기(21편) ▲풍납제, 국제영화제, 부채, 비빔밥, 농악, 가막, 판소리 등 전주문화이야기(16편) ▲동화농민혁명, 3·1운동 등 전주역사이야기(6편) 등이 담겼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전주윤슬 50선'을 품 주민센터, 평생학습 유관기관, 도서관, 초·중학교 등 400여 곳에 비



전주시는 매월 제작되는 월간 윤슬 가운데 50개 작품을 담은 '전주윤슬 50선'을 발간했다.

치하고,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지금 기록해놓지 않으면 사라질 전주 곳곳의 사람, 지명, 문화, 근대 건축물에 대한 기억을 한 데 모아 전주의 미래

세대에게 품격 있는 가치를 전달하자는 의미로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들며 인물을 만나고 명소를 돌아보는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마을버스 운전원, 신속한 조치로 의식 잃은 승객 구해

운전원 주대영 주임, 119 안내 따라 대처해 승객 상태 호전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온'의 운전원이 신속한 조치로 의식을 잃은 70대 승객을 구해 화제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운전원 주대영(52) 주임은 전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조춘초등학교 인근에 급히 버스를 세우고 승객 A(79 여)씨에게 다가갔다.

버스에 탈 때 "제일아파트 앞에서 내려달라"고 말한 A씨가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주 주임이 여러 차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지만 A씨는 반응이 없었다. A씨는 운몽이 땀에 젖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주 주임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깨워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A씨를 깨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흔들려 깨우기 10여 분만에 A씨는 힘겹게 의식을 되찾았고, 혼미한 정신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A씨 요청에 주 주임은 A씨를 거의 안다시피 해 인근 상가 건물 2층 화장실까지 데려갔다.

이처럼 주 주임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전주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온'의 운전원 주대영 주임이 신속한 조치로 의식을 잃은 70대 승객을 구해 화제다.

때 A씨의 상태는 병원에 이송하는 대신 지인에게 인계해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A씨는 뇌졸중으로 최근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대영 주임은 "별다른 일 없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려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승객 분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승객 대부분이 노인 등의 교통약자인 점을 감안해

운전원이 직접 승객의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등 친절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며 "마을버스가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친환경 전기 마을버스 14대를 전주시 18개 노선에 배치해 운행하고 있으며, 42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영생고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마무리

교통체증 해소 위해 7개→9개 차로 증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전주시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의 차로를 늘리고 선형도 개선했다.

시는 국비 1억1,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 '영생고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존 7개 차로를 9개 차로로 2개 차로를 증설하고 혁신·만성지구에서 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우회전 차로를 조성해 정체 요인을 해소했다.

또한 차량의 불법유턴과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차선 분리대를 연장 설치했다.

교통섬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는 보도부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으로 교체해 통과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



전주시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의 차로를 늘리고 선형도 개선했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우아동 명주골 네거리 ▲삼천동 세창아파트 사거리 ▲진북동 서신교 동측 삼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을 안전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진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시민들께서도 규정 속도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